



ONE MINISTRY

Newsletter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Beautiful ONE" 을 꿈꾸는 원 미니스트리는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발달 장애 사역 기관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37-38

이제 여름이 되어 미국 동남부 특유의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위로 인한 목마름을 느낄 때 시원한 생수가 생각나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갈증을 느낄 때 생수가 생각나듯 영적인 결핍을 느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에 내면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고 예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가? 무엇으로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한다면 그에 대한 답으로 대부분 외부 조건을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고, 그것이 있어야만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외부 조건들을 무시할 수 있는 사

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외부 조건도 내면의 깊은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외부 환경이나 사건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절대적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보려는 시도를 해보면 좋겠지만 이것 역시 외부조건들을 추구하느라 막힐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둔감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영혼의 갈증을 제대로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꿈을 이룰 가망성이 있고 성공을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며 살았기에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가 아닌 내면의 공허와 불안과 같은 것들을 생각

할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과 희망이 영적인 목마름을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하여 우리를 둔감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만족이 없는 이유를 그저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자신의 깊은 영적 갈증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 꿈을 이루었거나 목표를 이룬 소수의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만족이 없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히려 다 가지고 나서야 자기 내면의 공허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인 갈증을 망각하는 이유는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앞만보고 가는 삶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가 필요하며 그 생수를 얻으려면 내면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꿈을 이루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



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으며, 영적 갈증을 온갖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구원을 얻으려는 행동과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수를 발견하고 그것을 마시게 되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원래 예수님 안에만 생수의 근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으로 생수를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같은 넘쳐흐르는 생수를 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생수를 주변에 흘려보내시는 복된 삶 사시는 원미니스트리 가족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WRITTEN BY
장진원 목사님

DAY PROGRAM



안녕들 하신가요
세상 **COOL** 한 지우



제 2의 고든 램지를
꿈꾸며...



누가 좀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사색에 잠긴 나단이



chime 소리 좋네~*~*



캘리포니아주
윗주가 뭐더라?



신나는 **Pom Poms** 응원전



모두들 치즈~*~*

DAY PROGRAM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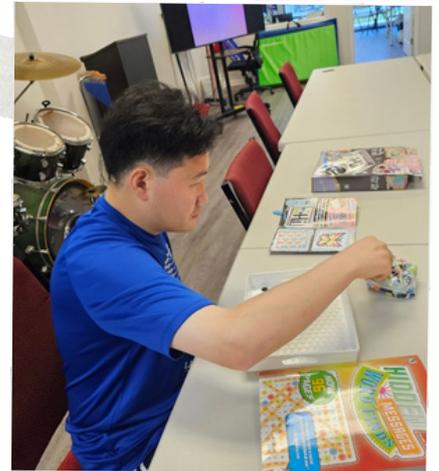
너무 예쁜 **dry flower art**



왕년의
cheer leader



밀고 끌고..
서로 돕는 친구들



섬세함이 필요한
소근육 운동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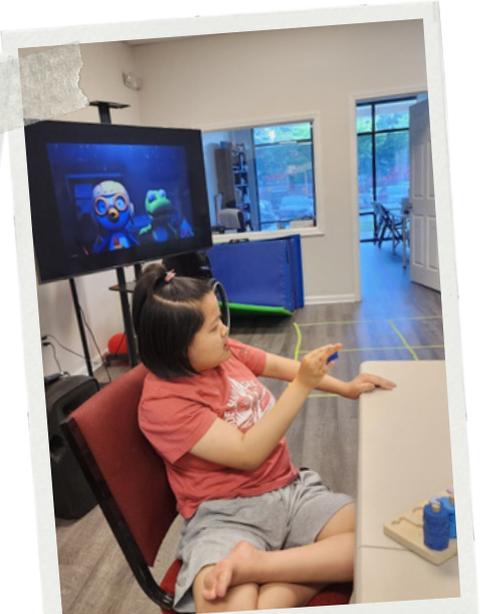


반갑다, 동생아



폼은 **NBA** 선수

금요학교





꿈글학교 봄학기



Play, Learn
and Grow
together
with Jesus!



ONE MINISTRY NEWS



2024년 꿈글학교 봄학기 종강식

5월 11일 원미니스트리 센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학기를 마무리 하는 꿈글학교
봄학기 종강식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원미니스트리를 지지하고 함께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들, 봉사자들, 부모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원미니스트리 방학안내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원미니스트리 방학입니다.



7/2(화)에 다시 뵙겠습니다!



ONE MINISTRY NEWS



2024년 One Ministry 꿈글학교 가을학기 안내

원미니스트리
꿈글학교
가을학기 안내

장소: 원미니스트리 센터
(등록 인원에 따라 장소
가 변경 될 수 있음)
일시 : 8/17-12/7
10am -2pm
(8/31,11/30 휴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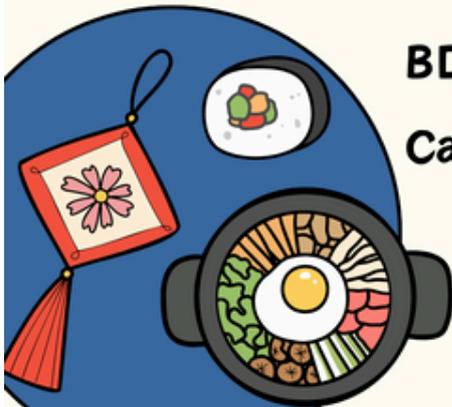
비용 안내

Respite 8시간/ day

BDI/Family support \$78/day

Cash \$50/day

점심 포함



CONTRIBUTION

5월 후원자님

Andrew & Esther Kim (\$100)
Connect Stem & Ji Edu (\$ 90)
이예선 (\$100)
Michael Kim (\$500)
[사랑이네 치과]
섬기는 교회 (\$200)
곽공옥, 서귀애 (\$1000)
장진원 (\$200)
주영광교회 (\$100)
Sally 성희 김 (\$2000)
[The Good Management]
Esther Han (\$50)
조우준, 조민화 (\$50)
김성락, 정진이 (\$50)
안희을 (\$100)
구자은 (\$50)
최경숙 (\$300)
채정림 (\$30)
주경미 (\$100)
임형규, 김혜란 (\$300)
[Hev System LLC]

점심 Donation

5/30: 진우가정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1. Check 우편 발송

*Payable to: ONE Ministry Atlanta, Inc
*Send to: 302 Satellite Blvd. Suite #129

2. 계좌 입금 (Bank of America)

*Account #: 334061943445
*Routing #: 061000052

3. Zelle Transfer

온라인 은행 계좌에서
ONE Ministry Atlanta, Inc와
oneministryatlanta@gmail.com을
등록 후 송금.

원미니스트리는
조지아주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으로
기부하신 모든 금액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ONE MINISTRY CENTER

Director: 장진원 목사님

MAIN MISSIONS

1. 예배 및 선교 사역

* 교회 장애인 부서 개설 및 장애 사역 지원

2. 교육 사역

* 원미니스트리 한글 학교: 꿈글 학교

* Summer Camp

* After School Classes

3. 복지 사역

* 발달 장애 성인 데이 프로그램: 두드림

Open

Tue-Sat, 9am-5pm



302 Satellite Blvd #129
Suwanee, GA 30024



470-350-1094



info@one-ministry.com



facebook.com/1000770455929



www.one-ministry.org



oneministry.atl

* Office Manager : 구자은 선생님